

東亞大學校, 오늘의 意志



鄭 樹 鳳
(東亞大 總長)

1. 大學의 略史와 現況

東亞大學校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11월 1일에 開校하였다. 石堂 鄭在煥 박사를 중심으로 한 釜山 지역의 先覺者들은 해방 조국의 첫째 과업은 敎育立國임을 굳게 믿고 학교법인 東亞學塾을 설립하여 自由·正義·眞理의 전당을 열었으니, 이것이 곧 40년 전통을 닦아 온 오늘의 東亞大學校이다.

東亞大學校는 法學部와 文學部 등 2개 학부에 5개 학과를 둔 4년제 대학으로 개교함으로써 귀국한 해외 유학생은 물론, 尙學熱에 불타던 해방 조국의 英才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었다. 흔히 해방 직후의 역사를 혼란과 무질서의 연속으로 일컫거니와, 원대한 포부로 충만한 학생과 높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었던 교수들은 이를 극복하여 名門私學의 더전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6·25動亂이 나고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속에 校舍를 釜山市 西區 東大新洞 3街 1番地로 옮긴 東亞大學校는 이곳에서 眞理 탐구의 의지를 세롭게 하며 대학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또 뻗어나갔다. 물론 개교 후 10년 동안은 創設期的인 건설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는 격동의 연속이었던 우리 사회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개설한 戰時科學講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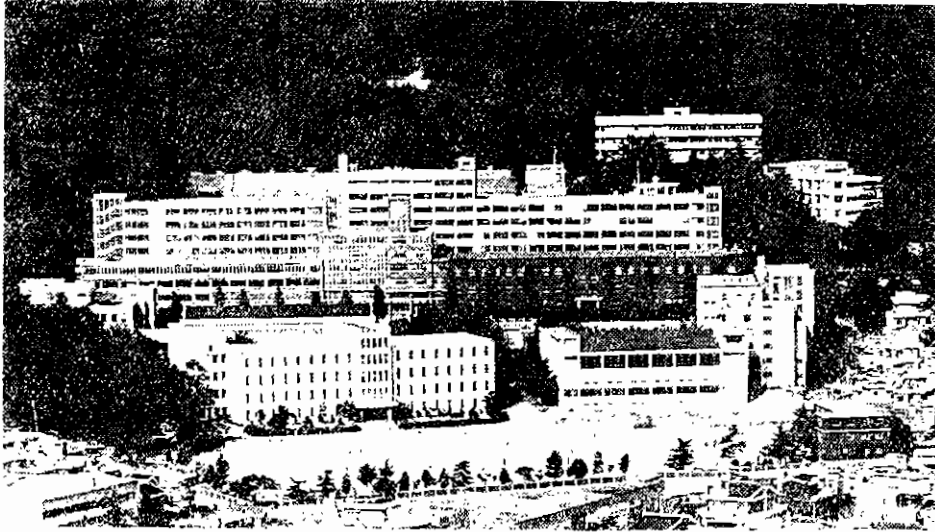
는 우리 대학이 地域敎育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敎育의 産室 구실을 떠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오늘의 夜間講座의 前身이기도 하다.

同族相殘의 상처가 아물어 가던 1959년에 우리 대학은 綜合大學으로 승격했다. 이것을 전환점으로 삼아서 初代總長 鄭在煥 박사는 대학 발전에 活力을 불어넣는 한편으로, 외곽 시설의 확충은 물론 내부적인 敎育 시설 확충도 추진하였다. 곧 1號館 校舍를 시발로 해서 5號館까지 교사가 준공되었고, 이어서 博物館, 中央圖書館 등도 준공되었다.

이와 함께 1958년에 설치된 大學院과 古典研究所 등은 명실공히 名門私學의 大殿堂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튼튼한 디딤돌이 되었다. 1956년 이후로 10년간을 연구 분위기의 基盤을 조성한 시설 擴充期였다고 한다면, 그 후 10년간은 실질적인 대학 發展期로서 研究風土 활성화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75년 6월 26일, 대학 설립자이자 초대 총장으로서 대학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은 鄭在煥 박사가 名譽總長으로 추대됨으로써 本人이 제 2대 總長의 所任을 맡게 되었다.

本人은 초대 총장의 偉業을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내외의 요청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을 痛感하고, 石堂 先生이 다져 놓은 기반 위에 대학의 長期發展計劃을 나름대로 마련했다. 지금 下端에 들어선 제 2 캠퍼스도



▲ 제 1 캠퍼스(東大新洞)

그때에 구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병행해서 대학의 연구 기능도 확대할 목적으로 石堂學術研究獎勵會를 발족시켰고, 에너지研究所, 人口問題研究所를 위시한 여러 연구소를 설치했다. 그리하여 研究의 産室이라는 대학 본연의 모습을 가다듬는 데에 나름대로 竭力했다.

또한 大學機構를 再編成하고 大學本部移轉 계획을 세워, 1985년 8월 15일에 대학본부와 문과대학을 제 2 캠퍼스로 移轉함으로써 大學發展의 제 2 단계 과업을 마무리했다.

이제 東亞大學校는 제 3 단계 發展期에 들어섰다. 제 3 단계 課業의 첫 과제는 메디컬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1984년에 이과대학에 醫豫科가 신설됨으로써 大新洞의 제 1 캠퍼스에 메디컬 센터를 구상하고 그에 따른 醫科大學 校舍 및 附屬病院 건립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1986년 현재,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校地 36만여 坪에 각종 시설 4만 7천 평이 들어서 있고, 大學院, 經營大學院, 教育大學院 등 3개 대학원을 위시해서 文科大學, 理科大學, 法科大學, 社會科學大學, 經營大學, 工科大學, 體育大學, 藝術大學 등 9개 단과대학에 58개 학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17개 학과에 걸쳐 夜間講座도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 대학 재학생 1만 8천여 명과 대학원생 2천 명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의 學徒가 강의실과 도서관, 연구실에서 미래의 꿈을 실현하려고 대학에 열중하고 있으며, 교수 4백 18명, 초빙교수 1백 45명, 그리고 조교 1백 27명 등 모두 6백 90명에 이르는 教授·研究陣이 저마다 전공 분야에서 研究와 教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 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직원 3백 69 명을 포함한 거대한 東亞家族의 일치된 뜻은 40만 권이 넘는 장서와 4천여 석의 열람석을 갖춘 中央圖書館을 비롯한 각 대학 과제도서실에, 그리고 교수 연구실과 사무실에 충만하여 眞理 탐구의 전당은 不夜城을 이룬다. 또한 學士, 碩士, 博士를 합쳐서 모두 4만 6천 명이 넘는 졸업생들도 사회 각계에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2. 建學理念과 教育目標

나라와 민족의 歷史가 아무리 長久하더라도 教育의 暢達이 없이는 우수한 文化를 꽃피울 수 없으며, 우수하고 독창적인 문화가 없이는 世界史의 主角으로 등장할 수가 없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東亞大學校는 教育을 통한 文化暢達의 신

념을 建學理念과 教育目標에 밝히고 개교 이래로 이를 받들어서 수행하고 있다.

東亞大學校의 건학이념은 弘益人間的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大韓民國의 교육 정신을 遵奉하여 인류 문화 발전에 필요한 學術을 교수·연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품격을 도야함으로써 조국 번영의 役羣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人材를 양성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단련하고, 민족적 독립과 自尊의 氣風을 갖춘 국민성을 함양하며, 책임감과 公德心을 기르고, 고유문화를 醇化昂揚하며 활달한 知性人이 되게 하는 데'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教育理念을 구현하기 위해서 '自由·正義·眞理'를 校是로 내세워 학생은 자유의 전당인 대학에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여 정의의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의 교육은 그 이념과 목표에 합당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啓發하면서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특성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① 敎科課程의 개발과 면학 풍토의 정착, ② 敎授·研究 활동의 강화, ③ 복지 시설의 확충, ④ 국제 문화 교류의 확대, ⑤ 대학 행정의 쇄신 등을 꾀하고 있다.

空間은 달라도 時間은 같이한다는 시대는 지났다. 요즘은 공간과 시간을 같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學問은 세계 속에서 끝없이 변천하므로 대학의 敎科課程 또한 無限한 啓發을 요구한다. 우리가 固有觀念에 얽매인 교육이 아닌, 변천·발전하는 교육을 지향하려면 새로운 학문과 理論을 도입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전제가 되면서 면학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敎授·研究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면 최미한의 연구 지원과 해외 교류를 권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敎授 定員의 1/3線을 정하여 해외 파견을 허용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例外 조치도 취한다.

그리고 안정된 대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 시설 확충에 관심을 크게 기울인다. 敎職員에게는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서 교수회관 등

의 시설을 마련해 주며, 학생들에게는 수업 분위기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학생회관과 같은 그들 세대에 맞는 시설을 제공하여 휴식과 함께 서클 활동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격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마다 30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또, 교양 함양을 위해 語學, 독서 등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知性人으로서의 소양을 닦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국내 大學間의 교류는 물론, 국제 교류를 증진하려고 국제 규모의 세미나 등을 권장함으로써 학문적인 자극을 유도하며 대학교육의 수준 향상에도 관심을 쏟는다. 이것은 국제화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潮流를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우리 대학, 또는 세계를 우리 대학교 캠퍼스에 도아 보자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하게 힘쓰는 연구 활동과 보조를 같이하는 대학 행정은, 업무를 쇄신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봉사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다. 中央電算研究所를 활용해서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여 입학, 학적, 일반 행정은 물론이고 敎科課程 운영에 따르는 업무도 電算化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3. 東亞大學校의 特性

한반도 東南端에 위치한 釜山은 우리 나라 공업화의 상징인 南部臨海工業地域의 중심 도시이자 海洋을 향해 열려 있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다. 東亞大學校가 40년 전에 이곳에서 창립 되었음은, 곧 이 地域 發展을 주도한 高級人力 양성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 공업화 및 경제 개발이 나라의 近代化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학이 敎育立國을 통해 나라의 발전에 貢獻한 바는 실로 지대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은 건학이념에서 闡明한 교육이념을 敎育現實에 투영하는 指標이자 實踐哲學을 石堂先生의 遺志인 '同座問道'의 정신에 두고 있다.

물론 '同座問道'의 정신을 실천하려면 모름지기 교수와 학생이 研究라는 同一目標을 향하여 함께 노력하고 협동하는 體制 形成이 선행되어야 함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깨우치고 또 傳授하는 대화가 중단할 때, 비로소 '同座問道'의 道場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民主적이고 自律적인 대학교육의 터전이 다져짐으로써 마침내 건전한 社會役軍을 배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학 不變의 신념이다.

이러한 뜻을 되새기면서 우리 대학 나름의 特色을 몇 가지 소개하려 한다.

1) 각 研究所의 活動

한 나라의 백년 후를 점칠 수 있는 곳은 大學의 研究所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학의 生命은 연구소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대학에는 石堂傳統文化研究院을 위시해서 大學附設研究所가 14개가 있고, 그 밖에 각 單科大學附設研究所도 20여 개에 이른다.

특히 石堂傳統文化研究院은 설립자인 石堂先生의 遺志를 받들어서 思想, 宗教, 政治, 經濟 등의 각 분야에 걸쳐 傳統的 遺産에 관한 문헌과 자료를 조사, 연구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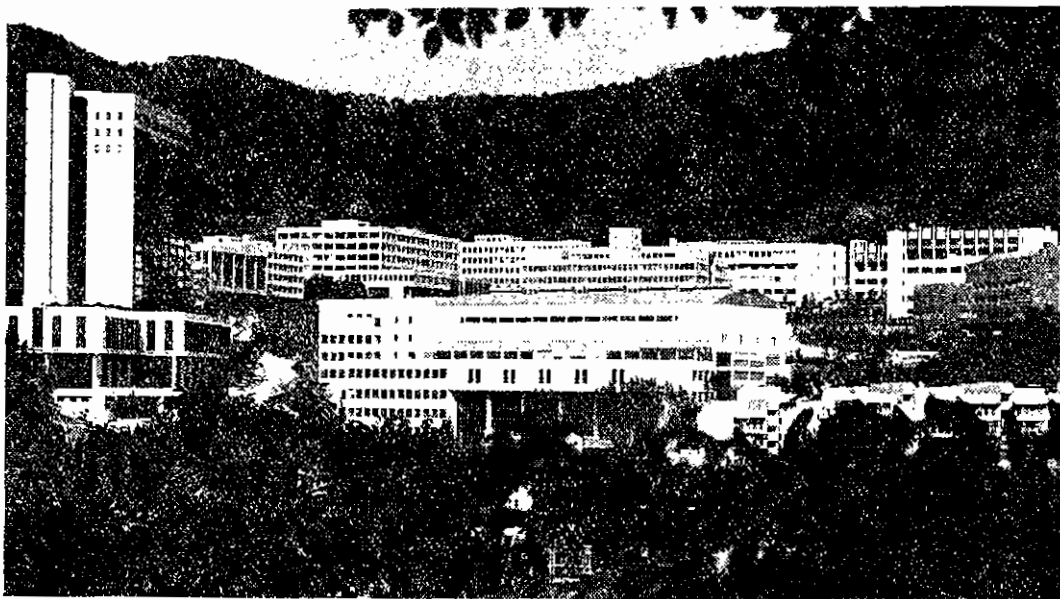
국내의 연구기관과 學術交流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곧 민족의 文化遺産을 개발, 연구하고 오늘에 再照明함으로써 文化民族으로서의 主體意識을 정립하고 계발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소는 1960년에 설치된 古典研究所를 모체로 하여 韓國民俗文化研究所와 歷史文化研究所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연구소이다. 이 연구소의 업적으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10년에 걸친 長期事業으로 간행된 「譯註高麗史」全11冊 完刊이다. 이 사업은 文獻譯註事業에 활력을 불어넣은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국가 차원으로도 수월하지 않는 偉業으로 꼽힌다.

또한 이 연구소는 광복할 연구 결과가 풍부하게 수록된 「石堂論叢」을 해마다 발간할 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에는 전교수와 연구원이 참여할 수 있는 研究發表 및 討議會를 마련하기도 한다. 아울러 격년제로 국가 규모의 學術大會도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財政 및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1972년에 설치된 環境問題研究所는 1983년에 환경청 지정 環境影響評價代行研究所로 格上됨

▼ 제 2 캠퍼스(下端洞)



으로써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 이 연구소에서는 최신의 시설과 장비를完備하고 해마다多大한 연구 실적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洛東江水域 保護를 위한 中長期 연구도 병행하는 등 地域社會의 이익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사회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이 연구소는 世界規模의 國際세미나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세계 碩學과 共同 연구를 꾀하는 한편, 海外用役도 發注받는 등, 국제적으로 그 名聲을 인정받고 있다.

1973년에 설치된 人口問題研究所 또한 1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他大學에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연구소로서 世界人口 膨脹과 자연적·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地球村의 현실 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長期的 政策方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國策과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共同關心事項인 人口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오는 6월말에 美國의 東西人口問題研究所와 공동으로 '韓國人口問題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는 美國, 中共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70여 명의 人口學者가 참여하여 연구 발표는 물론 學問交流도 증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基礎科學研究所, 資源問題研究所, 社會科學研究所, 農業技術研究所, 스포츠科學研究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설치된 각종 연구소의 활발한 활동은 우리 대학의 未來像을 가꾸는 東亞大學校의 오늘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學校法人에서는 研究基金 造成 및 연구비 지급을 확충하여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2) 考試班의 活性化

대학은 유능한 사회적 역군으로서의 人材를 배출해야 하는 사명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순수한 大學敎育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진출에 대비한 進路指導 또한 중요한 과업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 대학은 考試班과 特殊研究室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

지방대학으로서는 堪耐하기 어려운 惡條件을

극복함으로써 수많은 國家考試 合格者를 배출한 것은 실로 우리 대학의 特性으로 자부한다. 개교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학 출신의 司法·行政考試 합격자들은 법조계와 官界, 政界에 진출하여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대학은 1971년에 考試研究室인 '志篤寮'를 설치하여 오늘까지 고시 합격의 產室로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技術考試研究室과 會計士班 등도 單科大學附設로 운영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3) 體育振興의 產婆

'體育東亞'의 연고는 다시 말할 필요성도 없이 눈부시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史上初有의 金메달을 조국에 안겨 준 선수와 LA 올림픽의 金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곳이 바로 우리 대학이다.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도 金메달을 다섯 개나 따냈다. 여기에다가 大學野球의 개척자로 자부하는 野球部를 비롯해서 각종 운동부의 활약상은 東亞人의 굳건한 氣象과 불굴의 패기를 엿보게 한다. 이와 같은 감투성과 진취성은 나라의 체육 진흥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東亞體育은 韓國體育의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

이런 업적은 우리 대학이 연구 활동의 振作과 병행해서, 건강한 體力 또한 국력의 밑바탕임을 인식하여 체육 활동도 장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일찌기 씨름, 유도, 태권도, 레슬링, 육상 등 일반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종목을 북북히 육성함으로써 오늘날 올림픽 유지의 밑거름이 되게 했다고 자부한다. 지금 현재도 여러 종목에 걸쳐서 國家代表選手, 常備軍選手 등으로 뽑힌 선수들은 물론 크고 작은 운동부들이 대학의 명예뿐만 아니라 兩大 올림픽을 대비해서 즐기차게 땀을 흘리고 있다.

4) 세계적인 大學博物館

우리 대학의 자랑으로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大學博物館이다. 현재를 다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過去

의 香氣를 머금고 人類의 지혜를 보여 주는 곳이 우리 大學博物館이다.

1959년에 개관된 우리 大學博物館은 오로지 石堂 先生의 남다른 卓見과 우리 문화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식견의 結晶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石堂 先生의 비범함이 더욱 光彩를 발하는 전통문화의 寶庫이다.

大學博物館은 國寶 제69호인 朝鮮朝 「開國原從功臣錄券」을 비롯한 國家指定文化財 11점을 포함해서 지역과 시대를 대표하는 重要文化財 1만 7천여 점을 指定文化財 保存室 등의 시설에 소장하고 있다. 또한 분석, 분류 작업중에 있거나 장차 해야 할 文化財와 古考學 資料를 포함하던 수십만 점에 이르러 국내 尙지의 박물관으로 학계의 감탄과 찬사를 모으고 있다.

後代에 가서는 더욱 값진 평가를 받을 우리 대학박물관은 所藏 文化遺産을 보호, 관리하는 한편으로 古考學界 학자들과 교류를 넓혀 古代史 연구와 교육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해마다 몇 차례씩 일반에게도 공개함으로써 先祖들의 위대한 창조력을 재인식시키고 民族主體思想을 고취시키는 산 교실로 활용하기도 한다.

오는 8월말부터 아시아 경기대회 문화예술제 공식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伽倻遺物特別展’도 국내 尙지의 국립박물관들과 어깨를 함께 하는 우리 大學博物館의 眞面目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跳躍의 意志

올해로 建學 40주년을 맞는 東亞大學校는 解放祖國 建設에 앞장서서 격동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 넘으로써 이제 완숙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안정 속에 精進을 추구하는 우리 대학은 ‘大學 50년’을 내다보며 ‘世界 속의 大學’을 구현하는 名門의 꿈을 가꾸고 있다. 그 꿈은 교직원, 학생 등 2만여 東亞人의 일치된 걸속에 힘입어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大學發展 10개년 計劃’은 그 未來像을 실현할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함께 보여 준다. 곧 大新洞의 제1캠퍼스는 醫科大學과 附屬病院 등이 들어서는 메디컬 센터가 될 것이고, 下端洞의 제2캠퍼스는 大學本部와 함께 주요 대학이 자리 잡은 學問의 大殿堂으로 계속 번창할 것이다.

장차 학생수는 대체로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敎職員數는 거의 2배로 늘어나 2천 명을 넘을 것이다. 그리하여 ‘大學 50년’은 知識 創出을 위한 研究와, 지식의 傳授를 위한 敎育, 그리고 지식의 應用을 위한 奉仕가 충만한 민족과 인류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를 기필코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研究施設의 近代化를 이룩함은 물론이고, 우수한 敎授 유치와 연구 풍토의 定着化, 그리고 교과내용의 절진적 改善을 꾀함으로써 知識傳授를 통한 創造性 있는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